***PRESS INFORMATION***

|  |  |
| --- | --- |
| **보도 일시** | **2023. 8. 29 배포 시부터** |
| **사진 설명** | **LS마린솔루션 해저케이블 포설선 GL2030** |
| **문의** | **강철 차장(02-2189-9607, 010-9447-7079,** [**ckang@lscns.com**](mailto:ckang@lscns.com)**) / 뉴스룸(**[**http://news.lscns.com**](http://news.lscns.com)**)** |
| **LS마린솔루션, 비금도 해저케이블 포설 계약**  **■ LS전선이 턴키 수주, LS마린솔루션이 포설 참여**  **■ LS전선과 국내 협업 기반, 대만 등 해외 동반 진출 계획**  **■ 올 상반기 20년래 최대 영업이익 달성, 흑자전환**  LS마린솔루션이 LS전선과 협력, 사업 확대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.  LS마린솔루션은 29일 LS전선과 ‘비금도 해저 연계 사업’의 포설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.  전남 신안군 비금도 태양광발전단지와 안좌도 사이 약 7km 해저 구간에 전력케이블을 구축하는 사업이다. 이 사업은 LS전선이 올 1월 턴키(통합발주) 방식으로 수주했다.  LS마린솔루션은 전체 프로젝트 중 케이블을 해저에 설치하는 포설에 참여한다. 해저케이블 전문 포설선 GL2030이 투입되며, 계약 금액은 30억원이다.  GL2030은 선박위치정밀제어(DP·Dynamic Position) 시스템을 장착하고 있다. 이를 통해 포설의 정확성을 높이고, 바람과 높은 파고 등 기후 변화에도 선박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.  LS마린솔루션은 앞서 LS전선과 ‘제주 3연계 해저케이블 프로젝트’의 포, 매설 계약을 체결한데 이어 비금도 사업까지 수주하는 등 협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.  사업 강화를 위한 투자도 확대하고 있다. 약 91억원을 투입해 포, 매설 작업 설비의 현대화를 진행하고 있으며, 선박의 추가 확보도 검토하고 있다.  이승용 LS마린솔루션 대표는 “LS전선과 국내 협업 경험을 기반으로, 대만 해상풍력단지건설 등 해외 사업에도 동반 진출할 예정”이라고 말했다.  LS마린솔루션은 올 상반기 20년래 최대 영업이익과 순이익올 달성하며 흑자전환에 성공했다. 수주 역시 상반기에만 600억원을 기록, 이미 지난해 매출(428억원)을 150% 가까이 넘어서는 등 성장세다. | |